

‘기업 멘토링’ 새바람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생산성 높이고 퇴사 줄고...기아차·삼성생명·태평양 등 도입

최근 ‘멘토링(Mentoring) 제도’가 광주·전남지역 기업에 도입돼 큰 효과를 거두는 등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멘토링은 회사에 대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배사원이 후배 사원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활동으로, 생산성 제고와 퇴직률 감소 등 시너지효과가 커 기업들이 인재육성 핵심수단으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2년 상반기에 멘토링을 시작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1명의 멘토(Mentor·후견인)와 1~2명의 멘티(Mentee·구신원)를 1개조로 묶어 6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멘토는 매달 1회씩 전체 모임을 갖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직률 감소 등에 관한 계량적인 수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도 정규사원과 영업전문직에 멘토링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특히 영업직의 경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멘티가 일정한 영업수익을 올리면 멘토가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소액의 상품권을 증정하면서 격려해준다.

1년전 멘토링을 도입한 (주)태평양 광주사업부의 훈련기간은 3개월이다. 신입사원 연수과정에서 멘토링 결연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에 들어가면, 각 조마다 향후 활동 및 교육계획 등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짜여진 계획에 따라 실행한다. 개별 면담방식으로 멘토링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멘토링 발표대회를 거쳐 모든 실적을 평가한다.

태평양은 멘토링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별로 직무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 성과가 뛰어난 조에 대해 적절한 포상으로 장려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핵심인재 가운데 10%는 교육, 20%는 멘토링, 70%는 경력개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멘토링은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경력직 일선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차직원에서부터 소장에 이르기까지 멘토를 자청,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멘토링의 유래=고대 그리스 이타이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보살펴달라고 멘토에게 말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선생, 상담자, 아버지가 돼 잘 보살폈다고 한다. 그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 포스데이터는 멘토링을 통해 4년전 10%를 넘던 퇴직률을 1.8%로 줄였으며 이밖에 산업은행, 이랜드, 웅진코웨이 등도 조직관리와 직무능력 개발에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멘토링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멘토와 멘티의 적절한 선정,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멘토링 사례에 대해 승진 등 보상을 제공해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빛의 축제 ‘2006 빛고를 광주 루미나리에’가 17일 오후 6시30분 개막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아 조선일보 주최로 ‘화해의 빛, 희망의 빛, 나눔의 빛’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남로와 상무지구 등에서 오는 5월15일까지 계속된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는 ‘화해의 빛’을 주제로 별과 달, 해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설치돼 화려한 빛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 박광태씨 전남지사 후보 박준영씨

민주당 확정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박광태 현 시장이, 전남지사 후보로 박준영 현 지사가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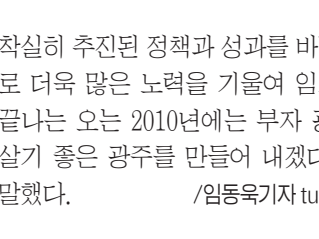
민주당은 17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공직심사특위(공특위)가 단독 후보로 발표한 박광태 현 광주시장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박광태 시장 후보 인터뷰 5면〉 또 민주당 공특위는 국창군 후보가 경선에 불참했다고 보고 박준영 현 지사를 전남지사 후보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표단회의를 통해 박 지사의 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나 이날 공특위 통과로 인해 사실상 박 지사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는 “그동안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를 1등 광주, 부자 광주로 만들기 위해 경제 살리기 운동과 문화 중심도시 건설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금까지



박광태씨



박준영씨

제51회 호남예술제 오늘 접수 마감
▶http://www.kwangju.co.kr ▶문의: (062)220-9541, 222-8111

‘여수엑스포 성공 유치’ 세미나

20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해양수산부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주최하고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후원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전략 및 공감대 확산’ 세미나가 20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각계각층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 일 시: 2006년 4월 20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
- 주 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전략 및 공감대 확산
- 주제발표
 - ▲제1주제: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김덕일(2012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부단장))
 - ▲제2주제: 2012세계박람회의 한반도 서남권 공감대 확산 전략 이견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토 론 자: ▲박계성(여수시 유치위원회 집행위원) ▲박종철(목포대학교 교수) ▲송진희(호남대학교 교수) ▲이계호(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이병록(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상문(해양수산부 유치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조경완(광주일보 논설위원)
- 주 최: 해양수산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후 원: 光州日報社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한나라 “한명숙 총리후보 반대”

추 정책위장 “부적합”

한나라당이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인준을 반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인준 여부가 주목된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첫날인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 80% 이상 반대하는데도 한 후보자는 주도로 폐지에 찬성해 왔고,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에 대해서도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한 후보자의 아들 군 보직 변경문제와 관련, “한 후보자의 아들 박모씨의 군 보직 변

경 청탁 의혹 사실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총리로서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도덕성 논란과 함께 한 후보자의 사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동욱기자 tuim@

54 품앗이의 보배!! ‘김찬일 수학·영어 클리닉’

김찬일 수학·영어 클리닉
믿고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수학·영어·과학 전문학원

수학: 1학년~3학년, 4학년~6학년, 7학년~9학년, 10학년~12학년

영어: 1학년~3학년, 4학년~6학년, 7학년~9학년, 10학년~12학년

과학: 7학년~9학년, 10학년~12학년

수업 시간: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10시~12시

수업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11길 11 (동성동) 1층

문의: 062-682-2840~1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학·영어·과학 전문학원

김찬일 수학·영어 클리닉

☎ 682-2840~1

학원·교육정보(광주)뉴스·교육뉴스실